

위클리 글로벌

2020. 2. 3.

Weekly Global

20

20



목 차

2020. 2. 3. 한류사업팀

구 분	제 목
중국	- (정책) 광전총국, 중국 다수 위성TV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송 지시 - (미디어) 중앙선전부, 광전총국 주도 후베이지역 방송국에 드라마 방영권 기증 - (영화) 춘절 영화 <경마(囍妈)> 인터넷 무료상영으로 영화업계 반발
중국 심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중국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콰이쇼우(快手) 쇼트클립 플랫폼, ‘전염방지’ 특별 프로그램 제작
인도네시아	- 인니 국영방송사 TVRI 사장, 이사회로부터 해고 당해 - 스나얀 시티 물에 라인 프렌즈 캐릭터 등장
베트남	- VNPT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 2020년 호치민시 발전 목표 -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임기 동안 5가지 목표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 [정책] 광전총국, 중국 다수 위성TV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송 지시

- 1월 28일, 광전총국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광전총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이후 중국 전역의 위성TV 방송사들에 전염병 방지 관련 홍보와 여론 인도(引導) 등을 지시함. 광전총국 선전사(司)는 일별 전국 36개 위성TV 프로그램을 총괄 편성해 질병방지 보도를 강화하고 오락 프로그램 방영을 축소함.
- 또, 중국 후베이(湖北) 지역을 제외한 후난(湖南)·저장(浙江)·안후이(安徽)·충칭(重庆) 등 다수 성(省)급 위성TV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 생방송 뉴스와 특별보도 프로그램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함.

□ [미디어] 중앙선전부, 광전총국 주도 후베이지역 방송국에 드라마 방영권 기증

- 1월 24일, 광전총국 홈페이지 게재 내용에 따르면,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와 광전총국(广电总局)이 긴급협의를 통해 후베이(湖北)와 우한(武汉)방송국에 <외교풍운(外交风云)>·<외과풍운(外科风云)>·<대강대하(大江大河)> 등 우수드라마 10편에 대한 방영권을 기증함.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춘절기간동안 문화 활동이 제한적인 후베이와 우한지역 민심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당 드라마 저작권을 소유한 기업들의 협조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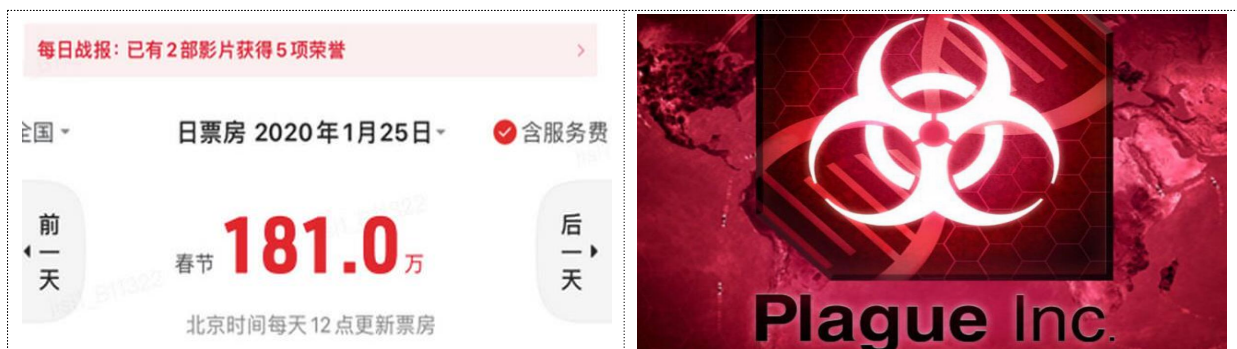
□ [영화] 춘절 영화 <경마(囍妈)> 인터넷 무료상영으로 영화업계 반발

- 1월 23일, 춘절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상영을 취소하고 기존 예약 판매된 영화티켓을 전면 환불함. 이 중 영화 <경마(囍妈)>가 돌연 25일 0시부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상영을 하면서 영화업계 씨어터체인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영화 <경마> 상영을 위해 체결한 VAM(对赌协议,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협약에 따라 배급사는 춘절기간 박스오피스 최저보증금액 24억 위안(약 4,061억 원)을 초과해야 6억 위안(약 1,015억 원)을 배당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사전예약, 스크린점유율 등으로 볼 때 최저보증금액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영화 상영이 취소되면서 바이트댄스(字节跳动)와 6억 3,000만 위안(약 1,066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을 시작함.
- 이에 중국 각지 23개 씨어터체인 회사들은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 시장처에 긴급 탄원서(紧急请示)를 제출함.

중국[심천]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중국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으로 2020년 춘절 기간 영화 7편이 상영 취소를 발표하였고 우한, 광저우, 상하이 등 비롯한 여러 지역의 영화관들이 춘절 연휴 기간 운영 잠정중단을 선언하였음. 추가적으로 중국 박스오피스 사이트 마오안(猫眼)에 따르면 올해 2020년 1월 25일 기준 전국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181만 위안으로, 작년 2019년도 매출액 14억 5,800만 위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우한 폐렴' 이 지속적으로 확산 된다면 중국 영화업계에는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됨.
- 1월 24일, '중국의 할리우드'라 불리는 헝디엔 스튜디오(横店影视城)는 춘절 기간 대외 개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헝디엔 외에도 닝보, 상산, 우시를 비롯한 여러 촬영지에는 관내 촬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음. 이에 곧 다가올 2월에 크랭크인을 앞둔 영화 제작사 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월 26일, 류덕화(刘德华)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회 콘서트를 취소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외에도 차이이린(蔡依林), 리종성(李宗盛), 한홍(韩红) 등 다수의 유명 가수들이 모든 공연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함.
- 그러나 영화, 공연계의 악재와 반대로 게임 산업은 활개를 치고 있음. 2012년 출시된 영국산 모바일 게임 '전염병 주식회사(Plague Inc.)'가 8년 만에 앱 스토어 차이나 지역 유료 게임 차트 1위에 올랐음. 현재 중국의 상황인 '우한폐렴' 과 게임 전염병이 공통적인 소재라는 점과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그래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이외에 기타 중국 게임들도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미지 출처 : 바이두

□ 콰이쇼우(快手) 쇼트클립 플랫폼, '전염방지' 특별 프로그램 제작

- 1월 27일, 쇼트클립 플랫폼 ‘콰이쇼우’,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과 국가위생건강위 질병공제국(国家卫生健康委疾控局)이 공동으로 라이브방송 퀴즈 프로그램 '콰이쇼우장원(快手状元) - 전염방지' 특별 세션을 제작하였음. 방송 데이터에 따르면 총 928만7,000명이 참여하였고, 상금으로 200위안을 수여함.
- 이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목적 외에도 자금 기부를 통해 우한 지역을 응원하는 취지로 제작되었음.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우한자선총회(武汉慈善总会)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발표함.
- 또한 콰이쇼우 플랫폼은 쇼크클립 및 라이브방송의 강점을 발휘하여 '폐렴 예방치료' 특별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억 명의 가입자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콰이쇼우는 우한시 정부에 1억 위안 기부 및 후베이성 적십자협회(红十字会)를 통해 우한에 N95 마스크 5만 개를 기증하는 등 우한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온라인 플랫폼 회사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미지 출처 : 바이두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 인니 국영방송사 TVRI 사장, 이사회로부터 해고 당해

- 2020년 1월 16일, TVRI 이사회는 헬미 야야(Helmy Yahya) TVRI 사장을 공식적으로 해고한다고 발표함
- TVRI 이사회가 발표한 헬미 야야(Helmy Yahya) 전 사장의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영국 프리미어 리그 방영권 구매 등 거액의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사유가 적절하지 않음. 둘째, 재임 중에 TVRI 리브랜딩 실패 등 업무를 계획에 따라 수행하지 못했음. 셋째, 인도네시아 금융조사청(BPK)에서 발간한 조사결과보고서(LHP)에 따르면 내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적절치 않은 인사배치를 하였음. 넷째, 인도네시아 법률에 어긋나는 프로그램 <퀴즈 : 누가 용감하나(Kuis Siapa Berani)>를 방영하였음. 다섯째, 헬미 야야 전 사장은 이사회 측의 신뢰를 얻지 못 하였음
- 이에 대해 전 사장은 다음과 같이 반박함. 첫째, TVRI 시청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방영권을 구매한 것으로, 해당 예산은 2018년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것임. 둘째, 신규 로고를 삽입한 직원 유니폼 및 방송 차량 교체, TVRI 리브랜딩을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 개최 등 리브랜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음. 셋째, 인도네시아 금융조사청(BPK)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헬미 야야 전 사장 체제 하에 TVRI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기에 이번 해임은 부당한 처사임이라고 밝힘. 넷째, 전 연령대가 시청가능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로열티 지불없이 프로그램 <퀴즈: 누가 용감하나(Kuis Siapa Berani)>를 방영하였음
- 한편, 총 4,300명의 TVRI 직원 중 4,000여명은 TVRI 시청률 상승 등 헬미 야야 전 사장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이사회가 부당해고를 하였다며 전 사장을 지지함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스나안 시티 몰에 라인 프렌즈 캐릭터 등장

- 2020년 1월 17일부터 2월 9일까지 자카르타 스나안 시티 몰(Senayan City Mall)에서 라인 프렌즈 캐릭터를 테마로 <Play LINE FRIENDS Spring Lights> 행사가 개최됨
- 라인 프렌즈 캐릭터인 브라운, 코니, 초코, 샬리 외에도 BT21 캐릭터도 함께 전시됨. 특히, 2.5m의 브라운 대형 인형이 인도네시아에 첫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주목을 끌음
- 이번 행사는 중국 춘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어 라인 프렌즈 캐릭터 행사 외에도 바롱사이(명절에 추는 중국 전통 호랑이 춤), 드래곤 랜턴 댄스, 경극, 우슈(중국 고유의 전통 무술의 하나) 등 다채로운 공연이 함께 열림
- 이미 동 쇼핑몰에서 2019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BT21 캐릭터를 테마로 체험존과 팝업 스토어가 운영되어 현지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은 바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가 발간한 <인도네시아 캐릭터 시장동향 (2018년 9호)>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캐릭터 시장 규모는 11조 673억 원인 반면, 인도네시아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은 2018년 기준 8,600만 달러(약 1,004억 원) 규모로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약 2억 5,000만 명임을 감안할 경우 아직은 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편임. 이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미진한데서 기인함
- 인도네시아 캐릭터 시장의 크기가 아직 협소한 관계로 주로 싱가포르에 위한 캐릭터 라이선스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전역에 대해 해당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프로모션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베트남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 VNPT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

- 2019년 VNPT((베트남 우정통신그룹) 총수익은 167,983억동(VND)으로 2018년 보다 2.7% 증가, 이윤은 2018년보다 10% 증가하였으며, 브랜드 가치로는 2위 차지(14% 증가)
- Huynh Quang Liem VNPT 본부장은 디지털 서비스의 강력한 성장을 토대로 VNPT가 통신 서비스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에 바람직한 전략을 채택한 결과라고 함
- VNPT의 2020년 목표는 총매출이 2019년보다 2% 오른 171,300억 동을 달성하고, 최고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되는 것. VNPT는 또한 AI, 빅 데이터, 핀테크(Fintech) 기술 플랫폼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2020년 호치민시 발전 목표

- 호치민 시 당국은 2020년 들어 경제 구조개편, 경쟁력 및 노동 능력향상,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예산목표 달성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교통 체증, 교통사고, 홍수, 환경오염, 기후변화 적응,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 등과 같은 중요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해준 국회 54호 결의의 성실한 이행결과, 2019년에 긍정적인 결과를 달성한 원동력임
- 호치민시는 2020년에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이 8.5%, 총 민간투자가 GDP의 35%로 목표를 설정. 참고로 호치민시의 2019년 해외 투자금액은 83억 달러 기록

□ 베트남,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임기 동안 5가지 목표

- 1월 16~17일 나트랑 시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됨. 참가 외교장관들은 아세안 35의 활동과 관련 주요 문제, 국제 이슈, 회의 결과에 대해 의견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함
- 2020년 베트남은 재임 기간 중 우선순위 목표 5가지를 겨냥함 : △지역 평화와 안보 강화 및 유지 △지역주의 결합 및 연결 △4차 산업혁명 적응력 개선 및 확산 △진보적 사회 인식과 정체성 강화 △전 세계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강화 △ASEAN 적응력 및 운영 효과 개선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주성호 센터장 : +1-323-935-2070 / thinkju@kocca.kr
 - 유럽 비즈니스센터 유성훈 센터장 : misterx1@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상현 센터장 : +86-10-6501-9971 / willbe@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심천) 남궁영준 센터장 : +86-755-2692-77971 / pinoky14@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황선희 센터장 : +81-3-5363-4511 / hwang216@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오현전 차장 : +971-2-491-722 / oh@kocca.kr
 - 베트남마케터(하노이) 홍정용 부장 : +84-39-226-4093 / hongiy@kocca.kr
-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